

김 종 승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문자 이미지를 응용한  
금속조형연구

-그리스 알파벳을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 민 아

문자 이미지를 응용한

금속조형연구

-그리스 알파벳을 중심으로-

김 종 승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김 민 아

# 인 준 서

김민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 문 개 요

현대인들은 이미지에 근거를 둔 의사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영화나 사진, 미술 등 최근의 예술작품들 뿐만 아니라 TV나 잡지를 통해 매일 접하는 광고 등에서도 이것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문화에 있어 시각 중심적 편견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모습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우리 이전의 세대보다 언어나 문자에 덜 의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문자발생과 역사에 대해 가지는 단순한 호기심과 함께 당시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함도 있으나 이와 더불어 문자가 가진 미적, 조형적인 매력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자가 가지는 상징성, 조형성은 조형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오래전부터 그리고 최근에 더욱 더 디자인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문자를 소재로 선정하고 대상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그 이미지를 새로운 시각적 표현수단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문자 이미지를 응용한 금속조형 연구”라는 주제로 문자를 사무공간이라는 일상적 생활공간 안에서 조형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문자의 상징적 의미와 형태의 아름다움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문자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과 표현대상의 기능성이 화합함으로 조화로움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 목 차

## 논 문 개 요

I.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
II. 본 론 .....	3
1. 이론적 배경 .....	3
1) 문자의 발생 .....	3
2) 문자의 유형과 알파벳 .....	4
3) 문자의 조형적 측면 .....	5
2. 작품 제작 .....	8
1) 디자인 전개 .....	8
2) 제작 방법 .....	10
3. 작품 분석 .....	12
III. 결 론 .....	28

## 참 고 도 판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Z - 편지트레이 .....	12
【작품 2】 $\gamma$ - 명함꽂이 I .....	14
【작품 3】 $\Phi$ - 문진 .....	16
【작품 4】 X - 시계 .....	18
【작품 5】 $\chi$ - 명함꽂이 II .....	20
【작품 6】 $\mu$ - 페이퍼나이프 .....	22
【작품 7】 $\iota$ - 액자 .....	24
【작품 8】 $\Gamma$ - 펜꽂이 .....	26

## 도 판 목 차

<도 판 1> Calligraphy

<도 판 2> 아라비아 Calligraphy

<도 판 3> 한자 Calligraphy

<도 판 4> Typography

<도 판 5> Typography

<도 판 6> Pablo Picasso, Guitar, 1913년

<도 판 7> Rene Magritte, 형상들의 배반(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1928-29년경

# I. 서론

## 1. 연구목적

현대사회 속에서 생활환경과 문화가 더욱 발전해 갈수록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각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자아와 개성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공간, 사용하는 물건들에서도 미적요소를 추구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단순하게 기능성만 추구되던 사무용품에 문자의 조형적 형태를 이용하여 미적요소를 추가함으로써 삭막하기 쉬운 사무공간에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사무용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자라는 주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인간사회를 더 진보된 모습으로 이끌어왔던 문자는 나라의 민족성, 역사, 문화를 반영하며 나름의 독자성과 구조를 지니고 시대흐름에 따라 변모해왔으며 현대로 올수록 심미적 아름다움과 기능은 더욱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여러 문자 중 그리스문자는 알파벳 중 처음으로 모음을 도입함으로써 현실을 넘어 자유로운 정신세계를 추구하도록 하여 이전까지의 정형화되고 가두어진 인간의 사고에 전환을 가져오게 한 문자이다.

그리스문자가 가지는 이러한 의의를 되살려 본 연구자는 그리스문자가 지닌 디자인적인 측면을 조사, 분석하여 평면적인 문자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요소를 찾아내어 그 조형성을 사무용품에 표현해 보고자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사무용품으로서 그 기능성의 특징을 살려 문자형태의 입체화를 통해 문자이미지의 조형적

미를 표현하여 우리 삶과 밀접한 사무용품에 기능성과 함께 미적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을 삼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그리스 알파벳의 형태를 모티브로 출발하는 본 연구자의 작업은 인간과 인간생활의 발전과정과 함께 끊임없이 발전해온 문자를 통해 인간과 문자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문자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연구하여 그리스 알파벳의 형태를 디자인적인 시각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이론적 측면으로 먼저 문자의 발생배경과 발전과정 및 유형을 살펴보았고 본 연구의 소재인 그리스 알파벳의 발생배경 및 그리스 알파벳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조형적 표현매체로서 문자가 예술적 측면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해 여러 문헌과 자료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방법적 측면에서는 기하학적인 그리스문자 알파벳의 구체적인 형태를 있는 그대로 또는 선과 구조의 변형을 통해 조형적으로 입체화시켜 현대감각에 맞게 디자인하였고 사무용품으로서의 기능성을 고려한 작품제작을 하였다. 폭넓은 작품 표현이 가능하도록 재료사용에 있어 알루미늄, 동, 철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하였고 단순화된 디자인의 보완을 위해 알루미늄을 사용한 작품에는 에노다이징(anodizing) 착색으로 색상의 변화를 주었으며 철을 사용한 작품에는 흑연을 첨가한 우레탄도료로 도색을 하였다.

## II. 본 론

### 1. 이론적 배경

#### 1) 문자의 발생

현재 지구상엔 약 230개<sup>1)</sup>의 나라와 약 100가지의 문자언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자의 등장은 인류역사발전에서 있어 위대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자언어의 기록이 없었다면 역사의 기록 역시 없어 옛사람들의 사고와 생활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문자는 세대 간 혹은 지역 간의 소통도구이다.

2만 2천년 전 동굴 벽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 후 1만 7천년 뒤 인류는 문자의 발명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문자의 시작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초의 문자는 숫자를 세기위한 수단으로 수확량을 기록한 것이었다. 문자는 고대의 주요 문명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했다고 보는데 이집트 최초의 문자는 기원전 3,100년, 인더스 강 유역은 기원전 2,500년, 크레타는 기원전 1,900년, 중국은 기원전 1,200년, 중앙아메리카는 기원전 600년경쯤 문자사용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sup>2)</sup>

문자는 무형의 형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각적 기호체계로 언어에 비해 글자는 정보를 담는 그릇으로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자는 그 당시 사회의 정치적,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문자는 통치수단이나, 종교 이념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

1) 2006년 5월 현재 국가정보원 자료

2) 앤드류 로빈슨, 『문자 이야기』, 사계절출판사, p12

## 2) 문자의 유형과 알파벳

문자의 발생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의사교류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의사교류의 수단으로서는 우선 표정과 몸짓이 있고 음성에 의한 언어가 그다음이다. 말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념들은 시각매체인 회화에 투사되어 기호로써 문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최초의 문자는 형상과 이미지를 반영한 그림문자로 가장 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물의 형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다. 그림문자(pictograph)에서 상형문자(象形文字), 설형문자(楔形文字, cuneiform script)<sup>3)</sup>, 초기한자를 포함하는 표의문자(表意文字, ideograph)<sup>4)</sup>로, 그리고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순수문자로 표음문자(表音文字, phonogram :음절문자)가 생겨나게 되었다.

상형문자, 설형문자, 중국한자의 공통점은 이들 문자의 각 글자가 단어가 되기도 하고 음절이 되기도 하므로 이들 문자를 읽으려면 상당히 많은 수의 기호나 한자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파벳은 26개의 기호만 알면 무엇이든 글로 표기할 수 있다.

알파벳은 약 3천년에 걸쳐 유럽문명이 영향을 주었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알파벳은 고대 그리스인들을 통해 현대 세계에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스의 알파벳은 자음뿐인 페니키아 문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를 기원전 1000년경으로 보고 있다.<sup>5)</sup> 페니키아 글자들은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왜곡되었는데 22개의 페니키아 자음이 차용(借用)되어 그리스어 자음과 모음으로 사용되었고, 몇 개의 기호가 추가되어 자음 17개, 모음 7개<sup>6)</sup>의 그리스 알파벳이 완성되었다. 여기서 모음의 등장은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전환되는 문자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일로 현

3) 그림문자에서 발전하여 이루어진 문자로 점토위에 갈대나 금속으로 만든 펜으로 새겨 썼기 때문에 문자의 선이 췌기모양으로 되어 췌기문자라고도 한다.

4) 문자가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자.

5) 앨버틴 가우어, 『문자의 역사』, 새날, p191

6) α(알파),ε(엡실론),η(에타),ι(이오타),ο(오미크론),υ(입실론),ω(오메가)

실적 세계에서 추상적 세계로의 전이(轉移)와 청각적 세계에서 시각적 세계로 전환되는 인간사회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다.

단순성, 수용성, 적합성의 체계로 이루어진 알파벳의 도입으로 인간은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B.C** 5세기와 4세기의 그리스인들은 당시 그리스의 풍요로운 물질문명을 바탕으로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여 많은 시와 희곡, 역사, 철학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문학을 창조했고 유럽은 이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고대 그리스의 조화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문자는 정교한 알파벳체계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라틴어 알파벳의 원천이 되었다.

### 3) 문자의 조형적 측면

언어의 궁극적 목표인 소통의 시각에서 본다면 예술의 표현 또한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자의 시작이 사상이나 신앙 등을 표현하기 위해 회화에 반영되어 그림문자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볼 때 문자와 예술은 그 시작이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각각의 글자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사고방식 그리고 기술 등을 반영해왔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 가치나 환경이 변화되면서 문자도 형태와 기능이 새롭게 변모해왔으며 문자의 표현은 심미적 아름다움과 기술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었다. 문자는 효율적이기 위해 끊임없이 변모해왔으며 아름답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문자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이용하는 서예술(Calligraphy)이나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와 같은 분야에서 잘 나타난다.

서예술은 그리스어 graphein(쓰다)과 kallos(아름다운)에서 온 말로 아름다운 문자나 독특한 서체를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운 문자가 아니라 문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 문자에 대한 이해, 일정한 법칙, 필서 재료 및 필기도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진정한 서예술을 완성할 수 있었

다.7) 코란(Koran)을 위주로 발달한 아라비아의 서예술과 기독교 문서용으로 많이 쓰인 서양의 서예술 그리고 붓의 발명과 함께 시작된 중국의 서예술이 대표적이다. <도판 1> <도판 2> <도판 3>

타이포그라피는 그림대신 문자자체로 전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표현하거나 문자자체를 그림처럼 꾸미거나 배열의 변화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각정보전달이라는 것 외에 미적장식개념을 추가하여 시각구성에 의한 미적 조형성을 추구해왔다.<도판 4>,<도판 5> 현대의 실험적 타이포그라피는 활자나 타이포그라피 요소들이 보다 자유롭고 역동감있게 표현되어 심리적, 미적 긴장감을 유도하는 추상예술이 되기도 한다.

20세기에 접어들어 문자는 단어의 덩어리와 의미의 연상에서 자유롭게 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각경험이 되었으며 서구문명에서 문자는 추상적 재현에서 하나의 시각적 이미지로 발전했다. 현대미술에서 문자는 그림에서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형적 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현대미술에서 문자의 등장은 20세기 입체파(Cubism)와 미래파(Futurism)의 문자 콜라주(Collage)<sup>8)</sup>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자연에 의존하지 않는 조형 예술의 개념을 창조함으로써 400년간 이어 내려온 르네상스 회화의 전통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예술적 전통과 시각을 창출했던 입체파와 1909년 마리네티(Filippo Tommaso Emilio Marinetti)의 미래주의선언<sup>9)</sup> 이후 일체 형식에 대항하는 자유와 즉흥성을 추구했던 미래파에게 콜라주는 자유로운 구성을 가능케 한 것으로 신문에서 오려낸 활자체와 단어들은 연상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시각적 형태로 자주 사용되었다. 이후에 문자에 대한 관심은 다다이즘(Dadaism)과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언어실험<sup>10)</sup>들로 이어졌고 60년

7) 앨버틴 가우어, 『문자의 역사』, 새날, p262

8) 분석적 큐비즘 시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 되자 실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문자를 사용하였다. 대표적 작가로 입체파의 피카소(Pablo Picasso)와 브라크(Georges Braque), 미래파의 마리네티(Filippo Tommaso Emilio Marinetti)가 있다.

9) 기계의 위력에 의하여 출현한 새로운 세계를 환영하고 과거에 대한 모든 집착을 거부하였으며 속도와 저돌성, 애국심과 전쟁을 찬양하였다.

10) 기성사회에 대한 반발로 강한 부정과 파괴적 요소를 가진 다다는 잡지형식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거

대 팝아트(Pop Art)<sup>11)</sup>와 개념미술(Conceptual Art)<sup>12)</sup>을 경험한 현대작가들에게 넘어와서는 이미지와 대등한 혹은 이미지를 대신하는 역할을 갖게 되었다.<도판 6>,<도판 7>

아라공(Aragon)<sup>13)</sup>은 ‘예술가의 중요성은 조형예술에 쓰이는 언어에 그가 어느 정도로 새로운 기호를 도입했는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오늘날에 있어 문자는 새로운 조형기호로서 미적,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칠고 무의미한 문자 형태나 공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삽화 등 도발적 시각요소가 나타났다. 초현실주의는 무의식과 꿈의 세계를 지향하여 시각예술에서도 환상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세계를 창조하였다. 대표작가로 호앙 미로(Joan Miro)와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가 있다.

- 11) 화면에 문자와 숫자 등의 기호를 사용한 팝 아트는 날카롭고 선명한 효과로 비개성적이고 비감성적인 차디찬 기계적 감성을 추구했고 신문이나 잡지 등의 폐품이나 다른 오브제를 결합하는 아쌔블라주(Assemblage)기법으로 작품의 소재를 무한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고 각 단편들이 의미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의 작품을 창조했다.
- 12) 개념주의는 미술가들이 작품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후 그것을 물질적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학이나 기록물 그리고 계획안으로 표현할 때 작품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 13) 아라공(Aragon Louis): 프랑스의 민중시인이자 소설가로 20세기 초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운동에 참여 핵심적 인물로 활동하다가 프랑스공산당에 가입, 이후에 민족시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 2. 작품제작

### 1) 디자인 전개

이미지는 대상물과 지각내용사이에 질적 유사성을 실행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대상의 반영, 투영, 회상, 정신적 이미지, 은유, 상징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산되고 조합되어 이루어진다. 14)

문자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상징적 이미지와 함께 주로 시각적 이미지로 많이 나타난다. 시각적 이미지는 대상의 여러 특징, 형태, 비율, 색, 질감 등을 취하는 것으로 문자는 이 중에서 형태적 특징이 강하다.

문자의 형태적 특징은 단순성, 율동성, 상징성이다. 단순성은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으로 구성된 것이고 율동성은 규율에 의한 움직임으로 동적이어서 운동감과 함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상징성은 알고 있는 대상물을 통해 미지의 것을 암시하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의 디자인 전개는 그리스 알파벳을 소재로 전개되었다.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는 크기가 비슷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질서와 정연한 배열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스 알파벳은 현대수학, 과학 분야에서 상징적 기호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래는 의미가 없는 표음문자이므로 문자의 형태적 특징 중에 상징적인 부분 보다는 단순성과 율동성의 특징을 살려 디자인하였다.

그리스 알파벳은 크게 24개의 기하학적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문자와 소문자를 합하면 50여개의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50여개의 기호들 중에서 사무용품으로서 기능성과 미적요소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디자인에 적합한 기호들을 선택하여 디자인 전개를 해보았다.

알파벳  $\Gamma$ (감마),  $Z$ (제타),  $X$ (카이)와 같은 문자의 디자인 전개에 있어서는 문자의 단순성에 조형성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소문자  $\gamma$ (감마)와

14) 마르틴 졸리, 『 이미지와 기호 』, 동문선, p43, p55

χ(카이)의 경우엔 문자의 자연스러운 선을 살리고 그에 의해 생기는 공간을 살리는 동시에 율동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작품에 있어 공간감은 작품의 균형, 구성, 감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색, 빛, 형 등의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어 자체적으로도 조형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sup>15)</sup>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읽기
A	α	Alpha (알파)
B	β	Beta (베타)
Γ	γ	Gamma (감마)
Δ	δ	Delta (델타)
E	ε	Epsilon (엡실론)
Z	ζ	Zeta (제타)
H	η	Eta (에타)
Θ	Θ	Theta (세타)
I	ι	Iota (이오타)
K	κ	Kappa (카파)
Λ	λ	Lambda (람다)
M	μ	Mu (뮤)
N	ν	Nu (뉴)
E	ξ	Xi (크사이)
O	ο	Omicron (오미크론)
Π	π	Pi (파이)
P	ρ	Rho (로우)
Σ	σ ς	Sigma (시그마)
T	τ	Tau (타우)
Υ	υ	Upsilon (업실론)
Φ	φ	Phi (파이)
X	χ	xhi (카이)
Ψ	ψ	psi (프사이)
Ω	ω	Omega (오메가)

15) 최병식, 『미술의 이해』,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p59-60

## 2) 제작 방법

본 연구의 작품들은 알루미늄과 동, 황동, 철 등을 이용하여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원형선반작업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금속과 금속을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불을 사용하지 않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표면처리 기법으로는 철을 사용한 작품에는 흑연을 첨가한 우레탄 도색을 하였고 알루미늄을 사용한 작품에는 에노다이징 착색으로 색상의 변화를 주었으며 알루미늄에 에바놀-C로 부식함으로써 평면적인 표면에 입체감을 표현하는 효과를 주었다.

<작품 1> 편지트레이와 <작품 2> 명함꽂이는 금속을 밴딩하여 Z(제타)와  $\gamma$ (감마) 알파벳의 곡선 형태를 따와서 부드러운 곡선의 미와 함께 장식을 배제하여 사무용품으로서의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작품 1> 편지트레이의 재료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였고 알루미늄 판을 밴딩을 하여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냈으며 표면은 모래맞춤(Sandblasting)후 에노다이징 착색으로 마무리하였다. <작품 2> 명함꽂이는 재료로는 동을 사용하였고 표면처리는 광을 내거나 부분적으로 모래맞춤을 한 뒤 백금도금으로 마무리하였다.

<작품 3> 문진은  $\Phi$ (파이)의 형태를 변형하여 디자인한 것으로 문진의 기능으로서의 무게감을 위해 덩어리의 느낌을 살렸고 원형과 직선의 겹쳐짐의 효과로 방향성, 운동감을 주었다. 표면처리는 부분적 니켈도금으로 황동자체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진주를 사용하여 장식적 효과를 더하여 주었다.

철을 사용한 <작품 4> 시계는 흑연을 섞은 우레탄 도료 도색으로 표면처리를 하여 검정의 단색에서 느껴지는 단박함과 함께 단순하면서도 재질감이 느껴지도록 하였고 가운데 시계부분의 순은은 광을 내어 철과 대비되는 효과를 주었다. <작품 5> 명함꽂이 역시 밴딩으로 형태를 나타낸 작품으로

면 부분과 선부분 모두 밴딩을 하여 곡면, 곡선으로 나타내었고 면과 선은 구멍을 뚫어 선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결합을 하였다. 재료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선을 사용하였고 표면처리는 에노다이징 착색으로 여러 가지 색을 내도록 하여 변화를 주었다.

<작품 6> 페이퍼나이프는 손잡이부분에 에폭시를 이용한 다양한 색의 표현을 하여 장식의 효과를 더해주었다.

<작품 7> 액자는 재료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였고 검정색으로 에노다이징 착색을 한 알루미늄을 액자 앞뒤판 사이에 끼워 넣어 시각적 효과를 주었고 알루미늄표면에 에바놀-C 용액을 이용하여 부식효과를 줌으로써 표면에 질감을 주어 평면적인 면에 입체감을 주었다.

$\Gamma$ (감마)의 형태를 이용한 <작품 8> 펜꽂이는 알루미늄을 나사로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재료는 알루미늄을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원형선 반작업을 하여 연결부분의 부드러운 곡선을 균형 있고 효과적으로 절삭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였으며 장식을 배제하여 절제의미를 살린 작품이다.

### 3. 작품 분석



【작품 1】 Z - 편지트레이

215 X 260 X 50(mm)

알루미늄

## 【작품 1】 Z - 편지트레이(Letter tray)

트레이는 뚜껑이 없는 얇은 갑이나 칸막이 상자형태로 문서나 편지를 정리하여 올려놓을 수 있는 정리함, 서류함을 뜻하기도 하고 물건을 올려놓는 쟁반이나 쟁반의 형태를 가진 것을 총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알파벳 Z(제타)의 형태를 딴 편지트레이는 알파벳의 형태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형하여 곡선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함께 형태고정을 위한 나사를 제외한 장식을 배제하여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평면적이며 직선적인 Z의 단순한 형태를 곡선을 가진 면으로 변형하여 딱딱해지기 쉬운 사무공간에 부드러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위아래 두 면의 형태 좌우를 바꾸어 반복적으로 나타내어 통일감을 주었다.

면부분은 다른 장식을 배제하고 검정과 회색의 무채색 톤을 사용하여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고급스러움을 살렸고 접혀진 면의 끝은 광을 낸 알루미늄 파이프를 끼워 다른 무채색 면과 대비되어 강조되면서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작품 2】 γ - 명함꽃이 I  
65×30×125, 140×20×80(mm)  
동, 백금도금

## 【작품 2】 γ - 명함꽂이 I (Business card holder)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가장 빠른 수단인 명함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리는 동시에 이미지도 함께 전하는 것이다. 명함을 받는 사람은 명함을 통해 일차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 직업 등을 알기도 하지만 명함전달의 상황이나 명함의 디자인을 통해 부가적으로 그에 대한 이미지 또한 갖게 된다. 이렇게 이미지를 전달하는 명함을 꽂아두는 명함꽂이 역시 상대방에게 또 다른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

γ(감마) 알파벳의 곡선 형태를 따온 명함꽂이는 폭의 변화를 준 면을 밴딩으로 엇갈리게 하여 생긴 틈을 이용하여 명함을 꽂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두께와 폭에 변화를 준 곡선의 강약으로 유연한 선의 흐름을 주어 부드러운 곡선의 미와 함께 선 그 자체로 조형적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서로 교차되어 진행되는 선에서 운동감과 함께 리듬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장식을 배제하여 사무용품으로써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작품 3】  $\Phi$  - 문진  
110×50×40(mm)  
황동, 진주, 니켈도금

### 【작품 3】 $\Phi$ - 문진(Paperweight)

서진(書鎮)이라고도 불리는 문진은 종이를 누르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특수하게 정해진 형태는 없으므로 주로 관상적인 목적으로 많이 쓰였다. 때문에 여러 사무용품 중에서도 가장 조형적인 형태를 가진 것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백옥이나 비취 등을 사용하여 용이나 새 등을 조각하여 조형적인 형태를 주기도 하였고 구리를 도금하거나 철에 금, 은 상감을 하여 문양을 내기도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황동으로 금속이 지닌 물성인 무게감을 주어 문진으로서의 기능을 살렸으며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리스알파벳 중 원과 직선이 결합된  $\Phi$ (파이)의 형태를 응용하였다.  $\Phi$ 의 원형과 직선의 형태적 대비와 함께 도금을 통해 색의 대비를 주었으며  $\Phi$ 형태의 원형과 직선의 겹쳐짐에 있어 변화를 주어 방향성, 운동감을 주었다.

$\Phi$ 의 직선 형태는 유연한 곡선느낌이 나도록 변화를 주어 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기능적으로 손잡이가 되도록 하여 실용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하였다.



【작품 4】 X - 시계

100×60×130, 130×60×100(mm)

순은, 철

#### 【작품 4】 X - 시계(Clock)

시계는 시간을 알려줌으로 인간 삶에 공통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그 안에 인간을 가두어두려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정확히 말해줄 수 없으며 시계는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인간을 시간 속에 속박하고자 하나 계속 흘러가는 시간 속의 인간은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렇게 잡을 수도, 머물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없음, 미지의 것을 나타내는 알파벳 X(카이)의 형상을 통해 나타내었다.

단단하여 결코 깨어지지 않을 듯 한 시간이라는 틀은 X의 직선적인 형태로, 재료로는 철을 사용하여 강인한 느낌으로 나타내었고 시간 속의 인간은 디자인적으로는 부드러운 원형과 재료로는 순은을 사용하여 연약한 듯 보이지만 시간 속에 파묻히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내었다



【작품 5】 X - 명함꽂이 II  
150×25×30, 150×35×30(mm)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선

## 【작품 5】 X - 명함꽂이 II (Business card holder)

명함꽂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 명함이 꽂혀야만 비로소 제 이름을 가지며 완성이 된다.

두 개의 선이 엇갈린 형태를 가진 22번째 알파벳 X(카이)를 응용한 명함꽂이는 문자의 자연스러운 선을 살려 디자인한 것으로 엇갈린 부분 중 한쪽은 면으로 표현하고 한쪽은 선으로 표현하여 변화를 주었다.

선 부분은 부드러움이 강조되는 유연성과 함께 여러 개의 곡선을 같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율동감, 통일감이 느껴지게 하였고 면 부분은 여러 가지 색으로 에노다이징 착색을 하여 색을 통한 변화를 주었다.

명함을 꽂을 수 있는 선 부분은 일정한 간격을 주어 명함을 놓을 경우 45° 정도의 각도가 생겨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었고 여러 장의 명함을 꽂을 수 있도록 실용성을 부여했다.



**【작품 6】 μ - 페이퍼 나이프**  
195×40×8, 190×40×8(mm)  
알루미늄, 에폭시

## 【작품 6】 **μ** - 페이퍼나이프(Paper Knife)

과학문명과 사회의 발달로 휴대폰과 개인 컴퓨터의 보급이 늘어나고 문자나 이메일로 서로의 안부와 소식을 묻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예전처럼 편지를 쓰는 일은 날로 감소하고 있다. 기계를 통한 이러한 대화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메마르게 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감성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다림과 기대감을 주며 따뜻함을 전하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편지를 쓰는 일이 줄어들면서 페이퍼나이프의 사용 또한 줄어들어 지금은 페이퍼나이프를 기능적인 면에서 소유하려하기 보다는 장식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알파벳 **μ**(뮤)의 형태를 이용한 페이퍼나이프는 부드러운 볼륨과 곡선으로 선의 미와 함께 나이프에 대한 날카로운 이미지를 줄이고자 했고 손잡이 부분에 여러 가지 곡선모양으로 각각에 형태적 변화를 주었다.



【작품 7】 ㄴ - 액자

110×70×200, 100×60×190(mm)

알루미늄

### 【작품 7】 1 - 액자(Frame)

액자는 사진, 그림 등을 보존해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 등을 담아주는 기록 역할을 한다. 지난날에 대한 따뜻하고 편안한 기억들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존재 확인과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사무공간에 액자는 자칫 메마르기 쉬운 일상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알파벳 1(이오타)의 형태를 활용한 액자는 1형태의 곡선을 살려 디자인한 것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시간 흐름의 이미지를 부드러운 곡선에 담아보았다.

알루미늄 자체의 색과 에노다이징 착색을 통한 검은색으로 색의 대비를 통한 조화로운 느낌과 함께 액자 둘레에 배치된 검은색은 테두리 역할을 하여 시각적으로 깔끔함과 안정감을 주었다.



【작품 8】 Γ - 펜꽂이

215×43×50(mm)

알루미늄

## 【작품 8】 $\Gamma$ - 펜꽂이(Penstand)

펜꽂이는 필통과 달리 단순히 펜을 꽂는 기능 외에 장식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는 사무용품이다.

알파벳  $\Gamma$ (감마)의 형태를 이용한 펜꽂이는  $\Gamma$ 의 형태자체에 곡선을 부여하여 직선적인 펜을 꽂았을 때 더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의해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하였다.

펜이 꽂혀지는 위치와 유연하게 아래로 휘어지는 펜꽂이의 형태를 통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시선의 방향과 위치에 의한 균형의미를 느끼게 하였고 두께와 폭의 변화와 함께 부드러운 형태로 볼륨감을 주었다.

펜꽂이는 꽂혀지는 펜에 의해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펜과 조화를 이루어야 완성이 되는 사무용품이므로 광을 내어 효과를 준 것 외에 여타 장식을 배제하여 절제의미를 살렸다.

### Ⅲ. 결 론

놀라운 속도와 편리성과 위력을 가진 정보과학에 둘러싸여 빠르게 변화하며 발전하는 21세기의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의 정신욕구와 가치관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활문화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인간은 개인주의화되고 개성적이 되어 각자 자기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개개인의 자기표현욕구에 맞춰 일상용품들은 단순한 기능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를 겸비한 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평범한 공간을 새로운 조형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각양각색의 생활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본 연구자에게 문자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표현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문자의 이미지와 형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형세계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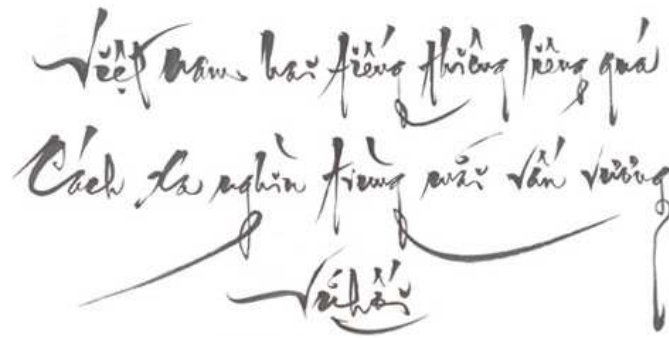
문자는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사고와 감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로 인해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대 미술가들에게 조형적 표현매체로서의 문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

문자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2차원의 문자를 3차원의 입체적인 형태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문자 본래의 형상을 매체로 하는 표현과, 문자를 구성하는 선의 흐름과 구조를 변형하는 표현을 이용하여 미적 감각과 조형성을 추구하는데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사무용품으로서의 기능성을 충분히 살려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람들이 삶에 있어 미를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인 면도 있지만 스스로 심리적 여유와 감성을 되찾아 인간임을 느끼고자하는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딱딱하고 메마르기 쉬운 사무공간에 미를 부여하고자한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인간의 삶에 또 다른 가치를 찾고 재조명하는 역할을 기대해 보며  
앞으로 계속적이고 보다 깊이 있는 조형과 기법 연구로 작품제작에 발전적  
표현과 조형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 참 고 도 판



<도판 1> Calligraphy



<도판 2> 아라비아 Calligraphy



<도판 3> 한자 Calligraphy



<도판 4> Typography  
designer: Timea Adrian



<도판 5> Typography  
designer: Bob Farber



<도판 6> Pablo Picasso,  
Guitar, 1913년



<도판 7> Rene Magritte,  
형상들의 배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1928-29년경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예경, 2003.  
로베르 마쎁. 김창식 역. 『글자와 이미지』. 미진사, 1994.  
마르틴 줄리. 이선형 역. 『이미지와 기호』. 동문선, 2004.  
앤드류 로빈슨. 박재욱 역. 『문자 이야기』. 사계절출판사, 2003.  
앨버틴 가우어. 강동일 역. 『문자의 역사』. 새날, 1995.  
자끄 데리다. 김용권 역.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조르주 장. 이종인 역. 『문자의 역사』. 시공사, 1995.

### <논문>

- 김영순. 「한글문자의 시각요소를 소재로 한 이미지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95.  
김은민. 「문자를 응용한 미술의상 연구」. 조선대학교, 2001.  
노지영. 「문자를 응용한 도자조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7.  
박인기. 「광고디자인에 있어서 문자의 시각이미지화에 관한 연구」. 삼척대 논문집 제32권 3호, 1999.  
안종갑. 「문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02.  
윤석빈. 「희랍문자의 변천과정과 더불어 본 구술언어와 문자언어가 인간실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한국동서철학회 논문집 『동서철학연구』 제28호, 2002.  
전승은. 「문자와 이미지표현연구」. 신라대학교, 2000.  
최병식. 「미술의 이해」. 숙명여자대학교, 1989.  
황수홍. 「이미지 표현을 위한 조형요소로서의 한글꼴 디자인 연구」. 서울대학교, 2000.

# **ABSTRACT**

## **Study On The Metal Expression In The Shape Of The Letter Image**

**Kim, Min-A**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We live in the age of communication based on an image. This phenomena can be seen through not only the recent work of art such as in movies, photographies, and art, but also in advertisements in our everyday life. This phenomena is becoming more evident as prejudice focused on visual images in the culture are increasing. Accordingly, dependency on the language or letter has decreased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former generation.

Nevertheless, the interest in the letter has been increasing. It might be due to a simple curiosity as well as desire for information on the history of the letter. Furthermore, aesthetic and formative attraction of the letter is an important factor of the interest. This symbolism and forms are in the limelight as a new subject matter of the formative art.

Consequently, I make a selection of the letter, which is an important subject of design from the old ages, as the subject of the thesis, and look into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and reconstruct the image of the letter as a new visual artistic presentation.

I present symbolic meaning and the beauty of the shape of the letter by giving formative shape to the letter in the workspace which is also a personal space in our daily life under the theme of "Study on the metal expression in the shape of the letter image". With this, the harmonization through combination, coexisting of the beauty of the character itself and functionality of the object can be drawn.